

2019. 11. 17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가복음 강해12)

막 5:1-20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됩니다.”

## I. 들어가면서- 만남, 하나님과 나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을 만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때론 위로로 받게 되는 것이 만남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만약 지금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고 있다면 엄청난 은혜요, 복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늘 만나길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를 흙으로 비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편, 창조 이후에 그를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동산에 함께 거하며 아담을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참된 교제를 누리며 늘 만남을 가지며 지냈다. 아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양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제자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직접 만나 그를 회심시키고 놀라운 사도로 세우시고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나 주셔서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다 아시므로 직접 찾아가 우리를 만나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친히 도와주시며 위로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시 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 II.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 오신 예수님(1-13절)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 치유하신다. 마가복음 5장은 특히 치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어려움에 처해있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 만나 교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신다. 오늘 말씀도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지금 배를 타고 그 길을 막았던 큰 광풍 또한 물리치시고 거라사로 향하고 계신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가신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도와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마15:24)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로 오신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이방인의 도시인 거라사로 향하고 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머니인 마리아의 도움 요청에 예수님께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요2:4)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아직 이방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긴급하고 다급한 모습을 풍기면서 예수님은 어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이방의 땅으로 향하신다.

이제 거라사란 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가온다(2절).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 안에’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 더러운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의미를 전해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자, 그 사람도 역시 “무덤에서 나온다” 무덤이라고 해서 우리의 공동묘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 무덤들은 돌을 파내어 만든 굴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체들도 함께 있는 구조였다. 지금 그런 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살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부정한 공간으로 이해되었는데, 정결법에 의하면 더 부정한 곳으로 취급받았던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상당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무덤이 그의 거처라는 정보는 가정과 사회와 고립된 채 죽음을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의 비참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간 실체는 바로 “더러운 영”이었다.

한편, 성경을 볼 때 무덤은 몹시 가난한 자들이나(욥30:6) 핍박받는 자들의(히11:38) 거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구약적 배경에서 무덤에 사는 자들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사65:1-7).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 은밀한 처소에 거하며 ‘돼지고기’를 먹는다(사65:4).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손을 벌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신다(사65:1-2).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이방 세계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거라사로 오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 대한 소개가 3-5절까지 설명된다. 그는 무덤에 살고 있으면서 그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엄청 세고 괴팍했다. 어떤 방법으로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도 그의 힘은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였고 아무도 그를 당해 낼 수도 없었다. 아마도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니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포기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에 대한 모습은 마치 짐승과 같고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치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은 앞서 나온 바다에서 배를 덮치던 맹렬한

폭풍과 동등하고 평행인 것처럼 보인다.

광풍을 통해 마가는 귀신의 능력이 예수님을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암시했다. 먼저 바다에 몰아친 폭풍의 악마 같은 성질은 거의 배를 뒤집을 뻔했으며, 이제 쇠사슬을 끊어 낼 정도로 힘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든다. 이런 곳은 누구도 어떤 이유라도 가려하지 않을 곳이다. 이런 곳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예상을 깨고 그곳에 가서서 그 사람을 만난다. 예수님께선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만나로 오신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부정함이라는 의식적 장벽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무서운 고정관념을 뚫고 들어가신다. 그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압하지 못하여 그의 힘이 우세하였지만, 이번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격한 위협이 더 강하지 않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절을 보면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먼저 한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단어는 누구를 예배하거나 경배해야 할 사람 앞에 몸을 엎드리는 것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의 발이나 옷단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도 뜻한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외친다. 7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백히 알고 있다. 야고보서의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약2:19)란 말씀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어느 누군가는 이런 고백을 듣고 칭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귀신 들린 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에 기록된 다른 책들에 의하면 귀신들은 축귀자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의 신분과 정체를 밝혀내었다고 한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신분을 감추시려는 의도를 알고(1:25,34)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즉 귀신이 한 고백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의도에 있어서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계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마가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을 내어 쫓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귀신 역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의도가 이어서 나오는데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말에서 내포되어 있다.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8절에서 찾을 수 있다. 마가는 앞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도 없으니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개역개정: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교묘하게 간청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실 괴롭히는 일은 더러운 영이하고 있는 일이다. 어떤 멀쩡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매우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귀신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처럼 귀신은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 없이 8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라고 말씀하

했다. 고대 책들을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복잡한 주문, 주술, 표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복잡한 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축귀의 효력이 예수님의 입 밖에 내는 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은 예수님 자신에게 내재해 있다. 예수님은 말하고 귀신들은 쫓겨난다. 예수님의 말이 곧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곧바로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저항한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 귀신도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막1:25-26) 지금 이 귀신들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보신다. 특이한 것은 귀신은 물음 없이 예수님 정체를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에 반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단연코 아니다. 오히려 그 귀신을 ‘복종’ 시키는 차원에서 그의 정체를 스스로 자백하게 한다. 굳이 이름을 몰라도 귀신을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름을 물어보면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귀신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고백케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보이심은 물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귀신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놀려 그 물음에 9절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한 뜻은 로마의 군대 조직 이름이다. 6,000명 정도 되는 군대 단위인데, 오직 로마 시민만이 입대할 수 있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지중해 지역 전역을 장악한 로마군대는 그 지역에 평화(Pax Romana)를 가져왔다고 선전했는데 그런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복자의 평화였기에 피정복 나라 입장에선 무덤 속의 고요와 같은 평화였다. 유대인은 이런 로마를 국가적 원수로 보았다. 마가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마태, **누가는 마가보다 이 내용을 짧게 기록했다**). 또한 귀신 스스로 자기 이름이 ‘레기온’이라 자백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와 더러운 영의 상관관계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지중해 지역의 나라를 억압하는 로마 뒤에는 더 근본적인 원수인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어서 10절에서 그 귀신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 악한 기운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간청은 이 거라사가 악한 귀신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것에 대한 추가적 단서이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배하던 귀신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다만 자비를 구할 뿐이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31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받아주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저항하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11절에 의하면 마침 거기에는 많은 돼지 떼가 산자락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간청한다. 12절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으므로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었기에 돼지를 기르고 있었고, 식용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 돼지들은 로마군

대의 음식으로 사용되었기에 그들에게서 있어서 이 돼지들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지금 그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돼지들을 귀신이 본 것이다. 그래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신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들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호수 쪽으로 내려가 마치 다이빙하듯이 빠져 익사했다. 아마 돼지 소리가 요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호수엔 당분간 돼지 시체들이 떠다녔을 것이며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예수님을 고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더럽고 부정한 귀신에게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은 더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귀신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핍계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럼 예수님께선 그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간청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들을 즉시 무저갱(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지만 돼지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능히 제어할 권세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계20:1-3).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귀신들은 훗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이 돼지 떼라는 집단으로 형상화되자 그 집단을 물에 빠뜨리심으로 심판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 안타깝게도 돼지는 물에 빠져 익사했을 지라도 현세는 아직 더러운 영으로 존재하는 귀신, 사탄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실제로 그 귀신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를 괴롭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그 당시 부정하게 여겨졌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는 간청은 정당해 보였기 때문에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처럼 더러운 영은 결국 부정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돼지의 목자들의 시각에선 엄청난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다. 돼지들이 몰살되는 것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딜레마는 윤리적 문제이다. 이천 마리의 돼지는 막대한 생계 수단이었으며 이들의 손실은 경제적 참사에 해당한다(돼지 한 마리당 50만원 정도 했을 때 10억 손실). 귀신 들린 자가 받은 도움이 돼지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일으킨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마가 모두는 돼지 목자들의 곤경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가므로 오로지 비참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한 남자의 구원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여기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본질적인 규범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돼지의 손실에 대한 딜레마마저 뛰어넘는다. 예수님이 볼 때에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이 어마어마한 고정 자산보다 더 중요하다. 인류의 구속에 비교하면 돼지 목자들의 손실은 아무리 상당할지라도 말할 가치가 없다.

### Ⅲ.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14-20절).

14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귀신을 쫓은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집중한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돼지 목자들은(돼지가 2천마리 이상인 것으로 보아 돼지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의 알림은 주변 지역 사람들을 불러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며, 사람들은 와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악명 높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15절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 모습**”처럼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사람을 본다.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그의 회복된 건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해진 그 사람을 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다(쉬운 성경은 ‘**깜짝 놀랐다**’고 표현함). 여기 주민들도 앞서 일어난 사건인 광풍 사건에서 제자들이 큰 광풍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기 주민들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것보다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능력에 더 경악했다. 게다가 지역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들었지만, 제자들과는 달리 이런 목격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역이 들어온 것을 분하게 여기고 떠날 것을 요구한다(17절). 16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해서 보고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시게 했을까? 그들이 돼지 목자들에게서 들은 것이 16절 “**귀신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 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들이 “**돼지 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들이 돼지의 몰살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는 힘든데, 이는 모여든 사람들의 정체가 돼지 목자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돼지가 바다에 떼죽음을 당한 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일 계속 그 지역에 머문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결국 그를 배척하게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들이 귀신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후 예수님을 떠나도록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배척 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인 그들에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강한 자를 제어한 예수님은 더 강한 귀신에 붙들린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마을에 남아있었다면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곳에서 몰아낸 것이다. 이전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핍박했다(막3:22).

이런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 마음의 반응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믿는다고 할 것이다. 신기한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이런 종교적 착각을 냉정하게 깨운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요1:11).

이들 이야기의 결과에 명백한 평행이 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아 평정을 찾은 것은 광풍이 멈추고 호수가 아주 고요하게 된 것과 대응한다. 두 외적이고 내면적인 광풍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 가라앉는다. 빛과 어두운 세상의 질서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처럼, 예수님은 혼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

이 이야기는 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18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달라**”는 간청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그 지역을 떠나시기 위해 배에 앉자,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 제자들의 자리에 함께 합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

하지 않으신다. 아직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마 10:5-6).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19절 “네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 마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돌이켜야 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돌이킨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다시 거라사가 속해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의 원인이 된다(7:31-8:9, 사천명을 먹이신 곳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부르심은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이 사람에게 침묵하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여기 귀신 들렸던 자를 보내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쫓겨나시는 것과 관련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할 사명을 주신다.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본질은 없애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그 말씀들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물 뿐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서 거대한 산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산맥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러 오신 것이고 이렇게 직접 오신 이유가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 IV. 나오면서 -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 일반적인 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신입사원 ‘장그래’가 나온다. 그는 고졸의 신분이라 처음엔 학벌과 스펙이 없다고 동기들과 상사에게 무시당한다. 그러나 추후 일을 잘 감당하므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자 다른 팀에서 장그래를 스카우트해가려고 넘보게 된다. 이것을 알게된 장그래의 상사 오상식 차장은 그 팀에 가서 분노하며 소리친다. “장그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도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의 삶은 비참하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사람을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 예수님께서선 깊은 밤이 오고 있었지만 그리고 참 인간이시므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배에서 주무실만큼 너무도 피곤하셨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 길을 막는 거대한 광풍을 물리치고 그 사람에게 급히 가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렇게 무리해서 가신 이유는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가 너무 보고 싶고 괴로워 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직접 가지 않으셔도 로마군대보다 더 강한 천군천사들을 그에게 보내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너무 보고 싶고 그의 아픔을 직접 만나 어루만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그를 찾아가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다. 우리

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 62:5-8>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감당하기 힘들신 분이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앉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한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엔 우리의 고통이 녹아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모든 아픈, 슬픔은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새날이 될 것이다.

<계 21:3-5>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새찬송가 337장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